

## 조합원 되기: 사회적 배제 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Union Affiliation: Social Exclusion Risk and Prosocial Behavior

조준형<sup>1</sup> · 이형철<sup>2</sup> · 김신우<sup>3†</sup>

JunHyoung Jo<sup>1</sup> · Hyung-Chul O. Li<sup>2</sup> · ShinWoo Kim<sup>3†</sup>

### Abstract

Past research reported mixed results on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rosocial behavior. Whereas some studies reported an increase in prosocial motivation and behavior, others proposed that social exclusion causes a decrease in prosocial behavior along with negative reactions such as anger and aggression. These conflicting results may have arisen because prosocial behavior does not in itself always produce social reconnection. That is, although prosocial behavior is a major means of promoting social relationships, the excluded person does not need to act prosocially to benefit others unless the behavior leads to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Unlike past research that assumed dichotomous situations of exclusion or belonging, the present research tested prosocial behavior in a social exclusion risk situation where the possibility of reconnection exists. In addition, we used the ability to potentially contribute to the group as another independent variable. We used a simulation game titled “Becoming a Union Member” to manipulate each participant’s social exclusion risk and ability. Participants responded to a simple survey named member personality test and gave preliminary votes to one another, and exclusion risk was manipulated by the number of votes received. Later, ability was manipulated by disclosing perception test scores in the named member ability test. In both Experiments 1 and 2, participants who scored high in terms of social exclusion risk and low in the ability to potentially contribute showed prosocial behavior in stipulating larger donation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probable social reconnection defined by exclusion risk and ability is the key to explaining prosocial behavior following social exclusion.

**Key words:** Social Exclusion, Sense of Belonging, Prosocial Behavior, Ability, Affiliation Fee

### 요약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보고했다.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가 부정정서를 유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했으나 다른 연구들은 친사회적 동기와 행동의 증가를 보고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이 항상 관계회복과 사회적 재연결(social reconnection)로 이어지지 않는 때문일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소속감 획득의 주요 수단이지만 배제상태에서 관계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친사회적 행동은 불필요할 것이다. 배제 혹은 소속의 이분법적 상태만을 규정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연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배제 위기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검증했다. 아울러 집단에 대한 기여

\* 이 논문은 2022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sup>1</sup> 조준형: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박사과정

<sup>2</sup> 이형철: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sup>3†</sup> (교신저자) 김신우: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 E-mail: shinwoo.kim@kw.ac.kr / TEL: 02-940-5421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인의 능력을 추가적인 독립변인으로 사용했다. 사회적 배제 위기와 참가자의 능력을 조작하기 위해 ‘조합원 되기’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인성검사로 지칭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참고하여 상호 예비투표를 실시했고, 득표수로 배제 위기를 조작했다. 이후 조합원 능력검사로 지칭한 지각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능력수준을 조작했다. 실험 1, 2에서 모두 배제 위기가 높고 능력이 낮은 참가자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약정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사회적 배제 위기 상황에서 재연결 가능성이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사회적 배제, 소속감, 친사회적 행동, 능력, 기부금

## 1. 서론

### 1.1. 사회적 배제와 친사회적 행동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을 개인이 자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집단에 소속되어 타인과의 협력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DeWall & Richman, 2011). 집단에 사회적으로 소속되는 것은 아주 큰 적응적 가치가 있으며 이는 현대에도 예외가 아니다. 소속감과 인정의 욕구는 인류의 생득적 욕구이며 (e.g., Maslow, 1943)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식욕, 수면욕 등과 마찬가지로 소속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소외되는 경우 고통(Chen et al., 2014), 충동성, 우울감(Twenge et al., 2007)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Jo et al., 2022).

다른 욕구들과 마찬가지로 소속욕구가 결핍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동기와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함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배제 상태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집단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Maner et al., 2007),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쉽게 순응했고(Williams et al., 2000), 긍정적인 사회적 단서를 더 잘 인식했다(DeWall et al., 2009). 이 결과들은 사회적 배제를 당한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친사회적 동기와 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를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함을 보고했다. 사회적 배제를 당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더 불친절했으며(Gest et al., 2001; Wentzel & McNamara, 1999), 타인의 모호한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Anan & Barnett, 1999), 심지어 노동 의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8). 통제된 실험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당한 사람들은 기부금액이 적었고, 봉사요청이나 도움을 더 자주 거절하는 한편(Twenge et al., 2007),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했다(Buckley et al., 2004; Twenge & Campbell, 2003).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배제 상황과 관련이 없는 타인들에 대해서도 나타났다(Twenge et al., 2001). 요약하자면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했다.

### 1.2. 사회적 재연결 기설과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혹은 반사회적 행동을 모두 유발한다는 것은 이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특정 조건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해야함에도 평판을 획득하고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의 의해 발생한다(Twenge et al., 2007). 그런데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희생을 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배제상태를 벗어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호의와 가치를 증명해보임으로써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회복하려는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시말해

사회적 배제 이후 친사회적 행동이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지는 친사회적 행동이 타인과의 관계 및 소속감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재연결 가설(social reconnection hypothesis)은 소속감의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이 인간의 생득적인 욕구이며 결핍상태의 인간은 이를 충족하려는 동기가 증가한다고 제안한다(Baumeister & Leary, 1995).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항상 배제상태의 사람들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끌지는 않는다고 제안한다. 사회적 재연결 가설은 재연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배제를 당하더라도 소속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측한다(DeWall & Richman, 2011; Maner et al., 2007).

실제로 Maner et al.(2007)은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관계형성을 도모한다는 사회적 재연결 가설을 지지하는 일련의 실험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향후 상호 교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했는데, 이는 소속감을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친사회적 행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Derfler-Rozin et al.(2010)은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들(e.g., Baumeister et al., 2005; Twenge et al., 2002)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해당 연구들에서는 참가자의 행동이 사회적 배제상태를 벗어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을 변경했을 때 참가자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줬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재연결 가설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로 인해 소속감의 욕구가 결핍되는 경우 이를 충족하려는 동기가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 소속상태를 회복하려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Derfler-Rozin et al., 2010; DeWall & Richman, 2011). 그러나 손상된 관계나 집단에 대한 소속 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을 수반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1.3. 현재의 연구

#### 1.3.1. 사회적 배제 위기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했다. 그런데 집단에 대한 소속성은 소속 혹은 배제의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의 일원으로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배제 위기(social exclusion risk)상태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집단의 암묵적 규율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들은 그 사람에게 경고신호를 보낼 수 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신호가 존재하지만 아직 배제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를 사회적 배제 위기라고 한다(Derfler-Rozin et al., 2010).

배제 위기가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erfler-Rozin et al.(2010)은 배제 위기에 빠진 구성원의 호혜적 행동이 증가함을 발견했지만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실험자가 구두로 직접 전달하는 등의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당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조합원 되기’로 명명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의 투표 결과를 통해 배제 위기 상황을 구현했다.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는 최종 단계에 이루어지지만 서로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근거로 ‘예비투표’를 실시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현실감 있는 배제 위기 상황을 조성했다. 실질적인 배제 위기 상황에서 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부금액 크기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했다.

#### 1.3.2. 능력: 집단에 대한 기여 가능성

집단에 대한 소속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수단에는 친사회적 행동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더라도 집단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들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렵채집을 하는 집단에서 창을 만드는 고유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친구들과 창업을 할 때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능력이 높은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Murnighan et al., 2004), 무례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고(Scott et al., 2013), 공격을 당하더라도 보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Herscovis et al., 2012)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들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암시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 이후 재연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줬다. 그런데 집단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인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배제 위기 상황에서도 굳이 적극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사회적 배제는 주로 소속감의 욕구 측면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능력 요소가 사회적 배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위기 상태에서 재연결 가능성이 있다면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관계회복이나 소속감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집단에 기여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는 경우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으로 집단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배제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희생이 필요한 친사회적 행동을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조합원 되기’라는 시뮬레이션 과제로 검증했다.

## 2. 실험 1

### 2.1. 방법

#### 2.1.1. 실험설계 및 참가자

2(사회적 배제 위기: 고위기, 저위기) × 2(능력: 고능력, 저능력) 참가자 간 요인설계를 사용했다. 총 45명의 광운대학교 학생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각 참가자는 요인설계 조합으로 구성된 네 개의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 2.1.2. 절차

실험은 총 여섯 단계로 진행했다. (1) 사전설명, (2) 조합원 인성검사, (3) 예비투표, (4) 조합원 능력검사, (5) 기부금 제출, (6) 최종 조합원 투표 및 추가과제.

이중 (3) ‘예비투표’는 사회적 배제 위기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할당된 조건에 따라 많거나 (저위기) 적은 (고위기) 득표를 한 것으로 제시했다. (4) ‘조합원 능력검사’는 참가자의 능력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수행과 무관하게 조건에 따라 참가자에게 높은 (고능력) 혹은 낮은 (저능력) 과제수행 능력이 있음을 피드백하고 전체 공개했다. (5) ‘기부금 제출’은 조합원이 될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기부금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했다.

**사전설명.** 참가자들에게 과기대, 광운대, 경희대, 숭실대, 중앙대의 다섯 학교에서 각 한명씩 온라인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조합원 되기’ 게임을 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다른 학교 참가자들이 모두 도착해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대기하도록 요청했고 약 2분뒤 컴퓨터 앞에 앉도록 안내했다. 사실 다른 참가자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는 각 참가자가 할당된 배제위기와 능력 조건에 따라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다(아래 설명).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종료까지 다른 참가자들이 가짜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실험이 시작되면 컴퓨터 화면에 다섯 학교의 로고와 학교명을 무선적인 위치에 제시했고, 참가자는 본인 소속인 광운대학교를 클릭했다.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조합원’이 되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며 조합원으로 선정되면 다른 참가자들과 협동과제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조합원은 참가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다섯 명 중 득표 순으로 세 명만 조합원이 됨을 안내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 조합원 장려금 명목으로 현금 5000원을 봉투에 넣어 지급했다. 이는 조합원으로 선정되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함을 안내했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험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조합원 인성검사.** 참가자들에게 서로의 성향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

다. 인성검사는 도덕적으로 다소 모호한 여섯 가지 행위의 바람직함을 묻는 총 6개 질문으로 구성했고 참가자들은 9점 척도로 응답했다. 참가자들에게는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 예비투표를 실시할 것이라 안내했다. 참가자가 인성검사를 완료하면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짜 참가자들의 응답내역과 함께 화면에 제시했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평판이나 인상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유발했다. 인성검사에서 가짜 참가자들의 평정값은 미리 입력된 값 그대로 출력한 것이었다.

**예비투표.** 예비투표는 사회적 배제 위기를 조작하기 위해 실시했다. 인성검사에서 참가자의 도덕적 판단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올바름이나 평판에 대한 우려를 유발한 다음 예비투표를 실시했다. 참가자에게 인성검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함께 조합원이 되고 싶은 두 명을 선택하도록 안내했고, 선택이 완료되면 득표수를 공개했다. 총 5명의 참가자들이 두 명씩 선택했기 때문에 10장의 표가 존재했다. 참가자들은 각각 3, 2, 2, 2, 1표를 받은 것으로 제시했다. 미리 할당된 사회적 배제 조건에 따라 참가자들은 1표(고위기) 혹은 3표(저위기)를 받았고, 이를 통해 배제위기를 조작했다.

고위기 조건에서 0표가 아닌 1표를 사용한 것은 참가자가 불분명한 이유로 0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실험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실험의 일반화 가능성 즉 외적 타당도를 훼손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기 조건의 참가자는 가장 적은 표를, 저위기 조건의 참가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조합원 능력 검사.** 능력변인 조작을 위해 조합원 능력검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조합원이 된 후 실시할 협동과제 수행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했다. 즉, 고능력자는 협동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저능력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 조합원 투표에서 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사전 설명함으로써 능력검사는 조합원이 될 자격검사를 참가자들에게 안내했다.

능력검사는 시간추정 과제와 즉산(subitizing)과제로 구성했는데 이 과제들은 정답을 알기 어려워 자신의 수행을 추측하기 매우 어렵다. 인성검사와 마찬가지로 능력검사 결과도 다른 가짜 참가자들의 점수와 함께 화면에 공개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수준을 다른 참가자들이 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조작했고, 실험자는 이 사실을 강조해 설명했다. 실제 수행결과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은 할당된 능력조건에 따라 1위에 해당하는 점수 (고능력) 혹은 5명중 공동 4위에 해당하는 최저점 (저능력)을 받은 것으로 제시했다.

**기부금 제출.** 최종 조합원 투표 전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기부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는 자신이 조합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금액을 조합원 장려금 5000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0~5000원). 조합원이 되면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질 수 있고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5000원을 실험자에게 반납하게 됨을 안내했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험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참가자가 약정한 기부금액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모두 공개되고 이후 최종 조합원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안내했다.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최대한 적게 기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조합원 투표 전 기부금이 공개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예비투표에서 적은 표를 받은 사회적 배제 ‘고위기’ 조건의 참가자는 충분한 기부금을 약정해야 할 것이다. 능력검사에서 ‘저능력’으로 나타난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예비투표와 능력검사는 참가자들에게 명확하게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전달한다. 능력검사에서 고능력 참가자들 (능력점수 1위인 참가자들)은 협동과제로 다른 참가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비투표의 득표수가 적더라도 최종 조합원 투표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주어진 정보들을 숙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1분 동안 대기하도록 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화면에 화살표를 클릭하여 기부금액을 제출했다.

**최종 조합원 투표 및 추가과제.**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된 다른 가짜 참가자들 중 두 명을 선택해 클릭함으로써 최종 투표를 실행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조합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조합원 장려금 5000원을 반납했고 간단한 추가과제를 수행한 후 실험을 완료했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으며,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참가자는 실험의 실제 목적과 절차에 대한 사후설명을 들었다. 본 연구는 광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2. 결과 및 논의

Fig. 1은 능력과 사회적 배제 위기에 따른 평균 기부금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능력이 낮을 때와 사회적 배제 위험이 높을 때 더 많은 기부금을 약정했고, 능력과 사회적 배제는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능력이 높을 때는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더라도 기부금액을 크게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서론에서 서술한 예측과 일치하는 패턴의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2(사회적 배제 위기) × 2(능력) 참가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기부금액에 대한 사회적 배제 위기의 주효과는 유의미했고,  $F(1, 41)=19.35, p<.001$ , 능력의 주효과 역시 유의미했다,  $F(1, 41)=7.85, p<.01$ .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 위기가 낮을 때( $M=2955, SD=937$ ) 보다 높을 때( $M=4109, SD=977$ ) 참가자들은

더 많은 기부금을 약정했다. 반대로 능력이 높을 때 ( $M=3159, SD=943$ ) 보다 낮을 때( $M=3913, SD=1155$ ) 더 많은 기부금을 제시했다.

사회적 배제 위기와 능력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했으며,  $F(1, 41)=4.38, p<.05$ , 이는 고위기-저능력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기부금이 다른 조건에 비해 높은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위기-저능력 조건과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의 조건 간 기부금 차이는 모두 유의했으며,  $ps<.006$ , 고위기-저능력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의 조건 간 기부금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ps>.382$ . 따라서 상호작용은 고위기-저능력 조건에서의 높은 기부금액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 1의 결과는 사회적 배제 위기와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상호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집단에 기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적 배제 위기는 기부를 통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켰다. 반면,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배제 위기가 높더라도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하지 않았다. 실험 1에서 기부금액 즉, 친사회적 행동의 유의미한 차이는 고위기-저능력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배제 위기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은 충분한 기부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굳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능력이 우월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Murnighan et al., 2004), 무례하더라도 쉽게 배제하지 못한다(Scott et al., 2013)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특히, 고위기-고능력 참가자들)도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우위를 인식하여 이를 이용함을 보여준다. 실험 1의 결과는 사회적 배제 위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가 자신이 집단에 소속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려는 동기에 의해 나타난다는 우리의 가설을 지지한다. 자신의 가치를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친사회적 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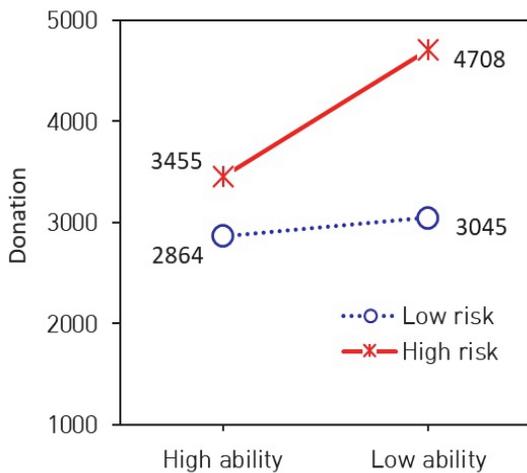


Fig. 1. Donation as a function of social exclusion risk and ability level (Expt. 1)

### 3. 실험 2

실험 1은 총 여섯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고 실험자는 안내를 위해 참가자와 일대일로 수차례 상호작용했다. 실험자는 가설과 참가자가 할당될 조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자의 미묘한 태도와 행동이 참가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절차는 사회적 반응을 연구하는 실험에서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실험 2는 실험자 효과를 최소화하고 실험 1의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조합원 되기’ 게임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과제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들은 제 3자의 입장에서 가상의 참가자 A를 상상하면서 게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A가 기부했을 법한 금액을 조건별로 작성해 제출했다. 특히 참가자가 단독으로 참여했던 실험 1과 달리 실험 2에서 참가자들은 집단으로 설명을 듣고 익명으로 응답을 제출했기 때문에 실험자의 기대를 추측하여 반응하는 실험자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험 2의 참가자들은 예비투표 단계에서 A는 한 표(고위기) 혹은 세 표(저위기)를 받았다는 설명만 제공 받았고, 능력검사에서도 1위(고능력) 혹은 공동 4위(저능력)로 결과 피드백을 했다는 정보만 제공받았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단일조건 상황에서의와 같이 실험자가 참가자의 반응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실험 2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실험 1의 저위기 조건에서 고능력 vs. 저능력 간의 결과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었다(Fig. 1). 예비투표의 결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즉, 저위기 조건에서) 능력에 따라 기부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일 것이다. 그런데 저위기 조건의 고능력( $M=2864$ )과 저능력( $M=3045$ )의 기부금액은 모두 3000원 내외로 그 차이가 약 180원으로 매우 작았고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아마도 참가자간 설계로 인해 조건 간 차이가 종속변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실험 1의 저위기 조건의 참가자들이 다른 능력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다면 능력에 따른 기부금의 차

이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e.g., Koriat et al., 2004). 예를 들어, 저위기-고능력 조건의 참가자는 저위기-저능력 조건을 의식한다면 기부금액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있다. 배제위기는 불확정적이지만 능력은 조합원으로써의 가치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2에서는 사회적 배제 위기는 참가자간 요인으로 고정하고 능력요인을 참가자내 요인으로 설정했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인물인 A가 사회적 배제 위기가 높거나 혹은 낮을 때 고능력 및 저능력 조건 각각에서 얼마를 기부할 것인지를 예측했다.

#### 3.1. 방법

##### 3.1.1. 실험설계 및 참가자

2(사회적 배제 위기: 고위기, 저위기) × 2(능력: 고능력, 저능력)의 혼합요인설계를 사용했다. 사회적 배제 위기는 참가자 간, 능력은 참가자 내 변인이었다. 총 73명의 광운대학교 학생이 실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배제 고위기(35명) 또는 저위기(38명) 조건 중 하나에 할당되어 조건별로 집단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 3.1.2. 절차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조합원 되기 게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게임에 참여한 가상의 참가자 A를 상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 되기 게임의 내용은 실험 1에서 진행된 것과 같았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상의 참가자 A는 조건에 따라 예비 투표에서 1표(고위기) 혹은 3표(저위기)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조합원 능력 검사에서 5명 중 1위(고능력) 혹은 4위(저능력)를 차지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실험자의 설명이 끝난 뒤 참가자는 “A는 기부금으로 얼마를 제출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때 고위기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예비투표에 1표를 받은 A가 능력검사 1위 혹은 4위인 각각의 경우에 대해 기부금액을 작성했다. 저위기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예비투표에서 3표를 받은 A가 능력검사 1위 혹은 4위인 각 경우에 대해 기부금액을 작성했다. 참가자내 요인이었던 능력조건(고능력, 저능력)의 각 경우에 대한 응답순

서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자유롭게 작성했다. 두 조건에 대한 응답을 적어서 제출하면 설문이 종료되었고, 약 2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3.2. 결과 및 논의

Fig. 2는 능력과 사회적 배제 위험에 따른 평균 기부금액 추정값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A의 능력이 낮을 때와 사회적 배제 위험이 높을 때 더 많은 기부금을 약정할 것이라 예측했다. 특히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가장 적을 것이라 추측했고, 이는 서론의 예측과 일치한다. 다만 능력과 배제 위험의 상호작용은 실험 1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2(사회적 배제 위험) × 2(능력) 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기부금액 추정값에 대한 사회적 배제 위험의 주효과는 유의미했고,  $F(1, 71)=53.80$ ,  $p<.001$ , 능력의 주효과 역시 유의미했다,  $F(1, 71)=107.51$ ,  $p<.001$  (Fig. 2).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 위험이 낮을 때( $M=2374$ ,  $SD=1140$ ) 보다 높을 때( $M=3647$ ,  $SD=984$ ) 참가자들의 기부금 예측값은 더 높았다. 반대로 능력이 높을 때( $M=2393$ ,  $SD=1085$ ) 보다 낮을 때( $M=3575$ ,  $SD=1103$ ) 기부금 예측값은 더 높았다. 사회적 배제 위험과 능력 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했으며,  $F(1, 71)=4.43$ ,  $p<.05$ , 이는 저위기-고능력 조건에서의 기부금 예측값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 특히 낮았던 것에 따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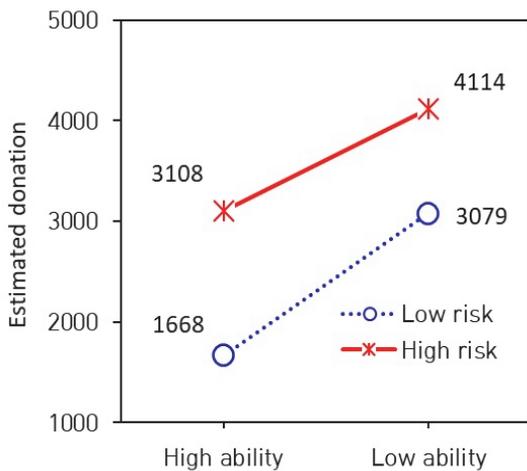


Fig. 2. Estimated donation as a function of social exclusion risk and ability level (Expt. 2)

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위기-고능력 조건과 저위기-저능력 조건 간의 기부금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p=.961$ , 다른 조건들의 조건 간 기부금 차이는 모두 유의했다,  $ps<.001$ . 이는 고위기 및 저위기 조건 모두에서 능력이 기부금 추정값을 낮게 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능력의 효과가 고위기 조건에 비해 저위기 조건에서 크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 2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제 위험과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험 2에서의 기부금액은 실험 1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또한 실험 1에서는 고위기-저능력 조건에서 특히 강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난 반면, 실험 2에서는 저위기-고능력 조건에서 특히 약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들 중 하나는 아마도 실험 2가 가상의 상황에서 제3자 판단을 요청한 실험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가상 상황에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선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회적 맥락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다(FeldmanHall et al., 2012; Rustichini, & Villeval, 2014). 그러나 실험 2와 같이 제3자 판단을 하는 가상의 상황에서는 실험 1에서 실제 참여자가 경험했을 강한 부정정서를 유발하기 어렵다. 특히 실험 1과 2의 고위기-저능력 조건에서의 차이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과제를 실제로 수행한 실험 1의 참가자들은 해당 조건에서 조합원 장려금 5,000원의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약 4,700원을 약정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배제당할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다. 또한 실험 2의 기부금 예측값은 실험 1의 실제 기부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이 역시 실험 1의 참가자들이 실험 2의 참가자들에 비해 배제당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설명을 각 실험의 저위기-고능력 조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실험 1의 참가자들은 고능력 조건이더라도 자신이 현실에서 정말로 배제될 가능성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제3자 판단을 하는 실험 2의 참가자들은 저위기-고능력 조건에서 참가자 A의 이기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객관적인 요소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

가 결과적으로 각 실험의 저위기-고능력 조건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2의 저위기-고능력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기부금 예측값은 평균 1,668원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의 모든 조건들 중 유일하게 장려금 5,000원의 절반인 2,500원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반면 실험 1의 참가자들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조차 장려금을 절반 이상 기부했다.

이와 함께 실험 1과 2의 실험설계의 차이가 참가자들의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험 1의 저위기 조건에서 고능력과 저능력의 기부금액의 차이는 약 180원으로 매우 작았고 유의미하지 않았다(Fig. 1). 이는 아마도 실험 1의 참가자간 설계로 인해 능력 차이가 기부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실험 2에서 능력을 참가자내 변인으로 두고 참가자들에게 고능력과 저능력 조건 모두에서 기부금액을 추정하도록 했을 때, 참가자들은 저위기-고능력에서 기부금 예측값을 대폭 낮추는 결과가 나타났다.

동일한 저위기 조건이라도 저능력인 조건과 비교하여 고능력인 경우 조합원으로써의 가치가 명확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실험 2의 저위기, 고능력 조건의 결과는 참가자들이 이러한 요소를 기부금 예측값에 적극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 4. 결론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은 불쾌감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생존에 중요한 생득적 욕구이며, 친사회적 행동은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주요 수단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견은 모순적이다. 이에 대해 Derfler-Rozin et al.(2010)은 사회적 재연결(social reconnection)을 핵심 변인으로 삼아, 재연결 가능성 여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달라짐을 제안했다. 이들은 사회적 배제 위기 상황의 참가자들이 관계를 회복하여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집단과의 재연결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배제 ‘위기’ 상황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소속 혹은 배제의 두 가지 상태만을 주로 다룬 것도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Derfler-Rozin et al.(2010)에서도 배제 위기상황을 현실감 있게 조성하기보다는 단순히 구두로 전달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조합원 되기’라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구성하여 배제 위기 상황을 현실감 있게 조성했다. 예비투표의 결과에 따라 참가자들은 사회적 배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적 배제 위기 수준에 따라 기부금으로 측정한 참가자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참가자의 능력을 또 다른 독립변인으로 조작했다. 사회적 배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집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타인들이 이를 안다면, 고능력자의 경우 자기 희생을 통한 친사회적 행동을 주저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예측이었다.

실험 1에서 사회적 배제 위기에 놓였던 참가자들은 더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약정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배제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 고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참가자들 보다 능력이 있는 경우 저위기 조건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실험 1은 사회적 배제 위기와 능력이 모두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실험 2에서는 조합원 되기 게임에 대한 제3자 판단을 요청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2에서도 사회적 배제 위기와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실험 1과 유사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에서 나타난 일부 상호작용의 양상 등이 달랐던 것은 실험 2가 제3자 판단을 요구했고 실험설계가 혼합요인 설계로 변경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1과 2가 사회적 배제 위기와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재연결 동기를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사회적 배제가 다양한 부정적 정서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파면이나 추방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적 배제 상황에 처한 개인은 원 소속집단과의 관계회복이 매우 어렵고 이 경우 사회적 배제의 부정적 결과는 비교적 명확할 것이다. 반면 사회적 배제 위기 상황에서 재연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구성원은 배제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구성원은 배제 위협 상황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존이 높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다. 수렵채집 집단에서 창 만드는 기술이나 어로를 하는 협동조직에서 그물을 짜는 기술을 혼자만 터득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배제 위협이 매우 낮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동업을 할 때 해당 직종의 면허증을 갖고 있거나 중요한 인맥을 보유한 사람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능력은 발생 가능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도 능력이 낮을 때 보다는 높을 때 더 적은 금액의 기부금을 약정했다.

본 연구는 집단에 대한 소속 혹은 배제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실험조건에서 배제 위기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온라인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짜 참가자들과 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방법은 기존 연구들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과거 배제 경험에 대한 회상, 사이버불 게임, 성격검사에 대한 피드백 등의 방법에 비해 훨씬 더 사실적인 상황을 조성하므로 외적 타당도가 높다. 본 연구를 위해 고안한 일명 ‘조합원 되기’ 게임은 사회적 배제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성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위기와 능력에 따라 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달라짐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새롭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임의적으로 구성된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1회성 게임에 참여했다. 타인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도 배제 위기와 능력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이 일관성있게 나타나는지는 알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집단만 존재했으나 다른 대안적인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배제 위기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주저할 수 있다. 관계 회복이 불확실한 집단에 대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부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했을 뿐, 다른 조합원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연구설계의 한계로 검증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연구에서 다뤄야할 질문들일 것이다.

## REFERENCES

- Anan, R. M., & Barnett, D. (1999).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s between prior attachment and subsequent adjustment: a study of urban African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5), 1210-1222. DOI: 10.1037/0012-1649.35.5.1210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DOI: 10.1037/0033-2909.117.3.497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DOI: 10.1016/S0022-1031(03)00064-7
- Chen, Z., Poon, K. T., Bernstein, M. J., & Teng, F. (2014). Rejecting another pains the self: The impact of perceived future reje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0(1), 225-233. DOI: 10.1016/j.jesp.2013.10.007
- Derfler-Rozin, R., Pillutla, M., & Thau, S. (2010). Social reconnection revisited: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risk on reciprocity, trust, and general

- risk-t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2(2), 140-150. DOI: 10.1016/j.obhdp.2010.02.005
- DeWall, C. N., Maner, J. K., & Rouby, D. A. (2009). Social exclusion and early-stage interpersonal perception: selective attention to signs of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4), 729. DOI: 10.1037/a0014634
- DeWall, C. N., & Richman, S. B. (2011). Social exclusion and the desire to reconnec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11), 919-932. DOI: 10.1111/j.1751-9004.2011.00383.x
- FeldmanHall, O., Mobbs, D., Evans, D., Hiscox, L., Navrady, L., & Dalgleish, T. (2012). What we say and what we do: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and hypothetical moral choices. *Cognition*, 123(3), 434-441. DOI: 10.1016/j.cognition.2012.02.001
- Gest, S. D., Graham-Bermann, S. A., & Hartup, W. W. (2001). Peer experience: Common and unique features of number of friendships, social network centrality, and sociometric status. *Social Development*, 10(1), 23-40. DOI: 10.1111/1467-9507.00146
- Hershcovis, M. S., Reich, T. C., Parker, S. K., & Bozeman,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aggression and target deviant behaviour: The moderating roles of power and task interdependence. *Work & Stress*, 26(1), 1-20. DOI: 10.1080/02678373.2012.660770
- Jo, J., Li, H.-C., & Kim, S. (2022). Influence of power and status on social exclusion (제3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른 사회적 배제행위에 대한 판단).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25(2), 31-44. DOI: 10.14695/KJSOS.2022.25.2.31
- Koriat, A., Bjork, R. A., Sheffer, L., & Bar, S. K. (2004). Predicting One's Own Forgetting: The Role of Experience-Based and Theory-Based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3(4), 643-656. DOI: 10.1037/0096-3445.133.4.643
- Lee, G. (2018). The key to leisure is human relationships: Social exclusion, active leisure, & passive leisure (여가는 사이에 있다: 사회적 배제, 적극적 여가, 그리고 소극적 여가).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2(3), 1-11. DOI: 10.26446/kjlrp.2018.9.42.3.1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45. DOI: 10.1037/0022-3514.92.1.42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DOI: 10.1037/h0054346
- Murnighan, J. K., Malhotra, D., & Weber, J. M. (2004). Paradoxes of trust: Empirical and theoretical departures from a traditional model. In R. M. Kramer, & K. S. Cook (Eds.), *Trust and distrust in organizations: Dilemmas and approaches* (pp. 293-326).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Rustichini, A., & Villeval, M. C. (2014). Moral hypocrisy, power and social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07, 10-24. DOI: 10.1016/j.jebo.2014.08.002
- Scott, K. L., Restubog, S. L. D., & Zagenczyk, T. J. (2013). A social exchange-based model of the antecedents of workplace exclu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8(1), 37-48. DOI: 10.1037/a0030135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DOI: 10.1037/0022-3514.92.1.56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DOI: 10.1037/0022-3514.81.6.1058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DOI: 10.1177/0146167202239051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 DOI: 10.1037/0022-3514.79.5.748

Wentzel, K. R., & McNamara, C. C. (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114-125. DOI: 10.1177/0272431699019001006

원고접수: 2024.02.23

수정접수: 2024.04.03

게재확정: 2024.04.11